

# 철저한 안전교육과 근로자 입장에 서서 이룩된 무재해

—유진차량정비(주)—



▲ 김 정 수 소장

경기도의정부시에는 수도권 2,000만 주민들의 자연휴식처로 녹색허파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북한산과 산의 모습이 송낙을 쓴 부처의 모습과 같다하여 이름지어진 불암산 사이에 도봉차량기지가 있다. 이 도봉차량기지 정비사업소에서는 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6호선과 7호선의 전동차 정비 및 검사를 유진차량정비(주)가 대행하고 있다.

전동차의 정비 및 검사를 담당하는 곳의 안전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유진차량정비(주)의 문을 두드렸다.

## ■ 철도차량 정비회사로써 국내 최초 ISO 9001 획득

유진차량정비(주)는 2000년 5월 모기업인 유진기공산업(주) 차량정비사업부에서 업무영역 확대에 의해 분사하여 2000년 6월 25일 철도차량 정비회사로써는 국내 처음으로 ISO 9001을 획득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두 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

직원의 40% 이상이 15년~35년의 철도차량정비 경력자로 그들만의 기술력으로 업무뿐만 아니라 안전에도 단연 최고라 자부한다.

이는 설립 이후 계속된 무재해로 알 수 있다. 유경험자가 선배의 입장에서 후배를





이끌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며 직장 동료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하였던 전동차의 핵심 부품들을 NABCO, WABCO 등의 세계적인 철도차량 부품 제작사와의 기술 제휴 및 교류협력으로 철도차량 부품 국산화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한 철도차량 부품의 질적 향상은 물론 외화 절감의 성과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 ■ 안전의 기본은 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이곳에서의 차량검사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40만km 주행시 소모품이나 마모된 제품들을 점검하고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3년 검사와 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3년 검사에서 교환하지 않은 세부 부품을 검사하고 교체함으로써 안전운행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6년 검사가 있다. 또한 운행 중 긴급한 이상 발생으로 안전상의 결함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으로 실시되는 임시검사인 T검사와 전동차 차량버퀴를 교체하는 차륜갱환검사인 NVC도 있

다.

유진차량정비(주)의 이러한 검사업무특성상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낙하 및 협착, 추락의 위험과 고압 취급에 따른 감전사고 등의 위험이 뒤따라 세심한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유진차량정비(주) 김정수 소장은 안전사고의 원천봉쇄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들의 안전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1순위로 꼽는다.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근로자들과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의 중심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현장에 반영해 그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정기적으로는 매월 6단계의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매월 첫째 주 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하여 각 직급별, 공장별 교육 등이 그 분야의 전문경험자에 의해 시행된다.

유진차량정비(주)에서는 부품, 회전기, 차체, 대차, 기계 및 장비 공장 등 5개 공장과 18개 반으로 세분화하여 3, 4종의 안전교육 및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유경험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안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동성이 빨라 민첩함을 요하는 업무에는 젊은 사람을, 기술력과 지구력이 요구되는 업무에는 유경험자를 배치하는 등 철저한 업무분담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 ■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한 안전경영

개인이 일으킨 안전사고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 동료에게도 책임을 떠넘기게 되고 그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가 제2의, 제3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김정수 소장은 전 직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족처럼 지내며 일상업무뿐 아니라 휴식시 운동경기 중에서의 작은 사고도 예방하기 위해 주임이나 과장 승인하에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주임, 과장, 부장, 소장 등이 항상 순회하여 작업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발생공장에 대해서는 진급과 보수에 차등을 두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힘써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물론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유기적으로 연



관·분담된 일정량의 업무만 가능케 하고 충분한 휴식 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 이 곳 유진차량정비(주)는 설립 이후 꾸준히 무재해추진 중에 있다.

우리 사람들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 전동차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찬가지이다. 이에 전동차의 병원이 되어주는 유진차량정비(주)는 전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무사고, 무재해 이룩과 함께 시민들의 두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를 기원한다. 

(성호연기자)

